

한류 꽃 피울 훈남들이 돌아온다

김래원·김우빈·이종석 등 ... 하반기 안방극장서 연기 대결



송중기는 있어라. 오빠들이 돌아온다. 유시진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박도경과 안단태 등이 몰고 온 훈훈한 미풍 덕에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이 생각보다는 큰 충격 없이 현실에 정착할 수 있었다. 송승헌(40), 김래원(35), 이준기(34), 정일우(29), 박서준(28), 김우빈(27), 이종석(27), 박보검(23) 등이 줄줄이 안방극장에 다시 나타난다.

◇ 의사·한류스타가 그리는 멜로 = SBS '편지'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절박함에 몸부림치던 김래원은 1년여 만에 검사 옷을 벗고 의사로 변신한다. 그는 오는 20일 시작하는 SBS '닥터스'에서 고등학교 교사와 신경외과 교수를 오가는 홍지홍을 연기한다. 홍지홍은 전도유명한 의학도였으나 인턴 시절 사소한 실수로 환자가 죽자 의사를 그만두고 고등학교 생물교사가 된다.

를 연기했던 '상속자들'에 이어 다시 한 번 특유의 거칠고 까칠한 안하무인 연기를 펼친다. 신준영은 어린 시절 가슴 아픈 약연으로 헤어졌던 노을(수지)과 재회하면서 변화하게 되고 애뜻한 사랑을 키워 나가기 때문이다.

◇ 청년 재벌의 영원한 판타지 = 이종석과 정일우는 나란히 재벌의 영원한 판타지를 구현한다. 캐릭터도 바뀐 옷에 걸맞게(?) 까칠하고 냉정하다. 지난해 SBS '피노키오'에서 가난한 천재를 연기했던 이종석은 7월20일 시작하는 MBC '더블유(W)'에서는 같은 천재지만 엄청난 부를 축적한 청년재벌 강철을 연기한다. 강철은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18세에 올림픽에 첫 출전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물리치고 단박에 금메달을 목에 건 그는 난데없이 진로를 바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뒤 벤처기업을 세워 1조원이 넘는 부를 쌓는다. 드라마는 의문에 싸여있고 냉정한 슈퍼재벌 강철과 호기심 많은 의과과사 오연주(한효주)가 같은 서울 안에서 각기 다른 차원을 거닐며 벌이는 아슬아슬한 멜로를 그린다.

◇ 왕자·도령들과 함께 시간여행 = 도령들이 잇따라 사극 속으로 뛰어든 것도 올 하반기 드라마 관련 포인트 중 하나다. 지난 겨울 '응답하라 1988' 신드롬 한가운데에 있었던 박보검은 8월15일 첫선을 보이는 KBS 2TV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 주인공 효명세자를 연기한다. 조선시대 청춘들의 성장 스토리를 그리는 이 작품에서 효명세자는 내시로 위장한 홍라온(김유정)과 로맨스를 그리게 된다.

8월29일 시작하는 SBS '보보경심 : 리'에서는 '사극 불패' 신화를 이어온 이준기가 나선다. 이준기는 고려 태조 왕건의 넷째 아들 왕소 역으로, 차가운 가면 속에 자신을 가둔 채 살아가지만 해수(아이유)를 통해 가면을 벗고 뜨겁게 사랑하며 광풍에 오르는 인물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전학생 혜정(박신혜 분)을 만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후 병영으로 돌아가 신경외과 교수가 된다. '편지'에서는 출세의 욕망에 휩싸인 인물을 연기했던 김래원은 이번에는 따뜻한 캐릭터를 맡아 특유의 싱그러움 매력을 과시할 예정이다.

김우빈은 7월6일 시작하는 KBS 2TV '함부로 애틋하게'에서 까칠한 매력의 정석을 보여준다. 2013년 '상속자들'로 스타덤에 오른 후 스크린을 거쳐 3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오는 김우빈은 이번엔 슈퍼스타 신준영 역을 맡았다. '흡입을 못 갖춘 최고'의 한류스타' 역으로, 김우빈은 '망나니' 재벌 2세

정일우는 8월 시작하는 tvN '신데렐라와 네명의 기사'로 MBC '야경꾼 일지' 이후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는 하위 1%에서 하루아침에 상위 1%의 로열 패밀리 일원이 된 반항아 강지은 역을 맡아 2009년 KBS '아가씨를 부탁해' 이후 다시 재벌가로 들어간다. 행동만 보여준 따뜻한 이미지를 뒤로하고 송곳이 솟아있는 캐릭터에 도전하는 그는 극중 사촌 형제들과 함께 은하연(박소담)을 두고 로맨스를 그린다.

10월에는 한류스타 송승헌이 SBS '사임당, 빛의 일기'로 돌아온다. 2012년 MBC '닥터 진'에서 조선 시대로 떨어진 현대의 의과과사를 연기했던 송승헌은 이번에는 조선의 왕족이자 천재화가 이겸이 된다. 사임당(이영애)을 여렸을 때 만나 20년 넘게 지고지순한 사랑을 펼치는 인물로, 부패한 조선시대 양반에게 맞서는 심지 굳은 캐릭터의 모습도 보여준다.

12월 KBS '화랑 더 비기닝'에서는 박서준을 볼 수 있다. 신라 수도 서라벌을 누비던 화랑들의 열정과 사랑, 성장을 그리는 청춘 드라마로, 박서준은 이릉도, 골품도 없는 천민 출신이지만 이후 전설적인 화랑으로 거듭나는 선우랑 역을 맡았다. /연휴뉴스

응팔 OST 오혁 '소녀' 29주간 상위권 통런



차트 급변 속 장수 음원 속속 등장 발라드·어쿠스틱 등 감상용 강세

실시간으로 차트가 급변하는 음원 시장에서 수명이 긴 노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보통 인기곡이 차트에 머무는 기간은 길어야 두 달가량인데, 올해 상반기 5개월 이상 긴 생명력을 자랑한 '장수' 음원들이 여러 곡 나왔다.

차트에서 '광탈'(빛의 속도만큼 매우 빨리 탈락할) 수모를 겪는 노래들이 많다는 점에서 대비되는 결과다.

멜론 올해 1월 첫주(2015년 12월 28일~2016년 1월 3일)부터 6월 첫주(5월 30일~6월 5일)까지 주간 종합차트 1위 곡(23주~6월 13곡)이 100위권에 머문 기간을 집계한 결과 20주 이상 진입한 노래가 무려 4곡이었다.

가장 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음원은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곡인 오혁의 '소녀'였다.〈사진〉

지난해 11월 21일 공개된 이 곡은 올해만 23주, 지난해까지 포함하면 총 29주간 100위권에 든 저력을 보였다.

이어 개리의 '또 하루', 수지와 백현의 듀엣곡 '드림'이 각각 21주, 지코의 '너는 나라는 너'가 20주간 '톱 100'에 머물렀다.

20주에는 못 미치지만 10주 이상 100위권에 진입한 노래도 5곡이었다.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가 19주, 마마무의 '넌 이즈 필름'이 15주, KBS 2TV '태양의 후예' OST 곡인 다비치의 '이 사랑'이 14주, 장범준의 '사랑에 빠졌죠(당신만이)'가 11주, 십센치의 '봄이 좋다??'가 10주간 '톱 100'을 유지했다.

이 밖에 4~6월 잇달아 출시된 정은지의 '하늘바라기'가 7주, 트와이스의 '치어 업!'이 6주, 백아연의 '쏘쏘'가 2주, 어반진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가 2주간 '톱 100'에 들었는데 11월까지 순위권에서 사라졌고

있어 수명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장수 음원 중 오혁의 '소녀'와 다비치의 '이 사랑'은 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 덕을 톡톡히 봤다.

특히 '소녀'는 이문세의 1985년 히트곡을 리메이크해 10대부터 50대까지 폭넓게 사랑받으며 기록적인 결과를 냈다.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환경이어서 중장년 유저들이 늘어났다"며 "'소녀'처럼 과거 명곡을 요즘 가수가 재탄생시킬 경우 10~20대부터 이들의 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40~5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호응을 얻곤 한다"고 말했다.

또 생명력이 긴 음원으로는 댄스곡보다 감상에 적합한 발라드와 어쿠스틱 사운드 곡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엔 관계자는 "가사와 멜로디로 대중의 공감을 끌어낸 감상용 음원이 비교적 차트에 오래 머문다"며 "또 취향에 맞는 곡을 장기간 소비하는 고객의 이용 패턴도 차트 결과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장수 음원이 늘어난 데는 음악 환경 개선이 일조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한 근절과 지정 목소리가 높아지며 역대 효과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지금껏 사재기는 실제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몇 회사가 음원 판매량을 변칙적으로 늘려 순위를 급상승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돼 차트가 요동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연휴뉴스

TV 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10 결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25주년 특집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30 KBS 뉴스	00 TV 소식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중계방송 제20대 국회 개원식	10 좋은 아침
10	00 중계방송 제20대 국회 개원식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5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중계방송 제20대 국회 개원식 4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대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아홉집 찰스(재)		00 닥터365 05 세상발견 유레카
12	00 KBS 뉴스 12	00 월화드라마 (백희가 돌아왔다)(재)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열린공간 특 talk(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네트워크 특선 (밥상의 진실)(재) 55 별별가족(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TV블로그 꿈지락
2	00 명인 50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00 키즈 사이언스 5	00 순간작 세상애 이연일(재)
3	40 이욱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재) 50 안녕 우리말 55 튼튼생활채널	00 지동경부채상 위키2 30 TV유지원	00 MBC 뉴스 10 특?특! 키즈스쿨 55 깨달음시대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UEFA 유로 2016 하이라이트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동네스타 전국방송내보내기(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교향연문록 남도에 살아라(재)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수상한 휴가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백희가 돌아왔다)	00 월화 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대박)
11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획 길	10 동상이몽 관철야 관철야
12	20 해외결정드라마 (닥터 포스터)	35 비바 K리그	20 MBC 뉴스24 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5 UEFA 유로 2016 (아일랜드 vs 스웨덴)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성공시대 기승 한국인 (행을 맛있게 만드는 기술, 발효 제과제빵 김영모)	09:40 라이보 토크 부모 (혹시 내 딸 안에 남자??) 10:30 한국기행 (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돼지고기 감자조림과 감자 장아찌)
06:10 EBS 특별기획 통찰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1:00 세계테마기행(재) 11:4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시대공감 (스토리 그곳)
07:30 로보카 폴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똥동맹 유치원 1~3 08:45 코코코 다코 09:00 캐니멀 09:30 원더볼츠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3:40 출가운 수학 EBS MATH 13:50 원더볼츠(재)
14:00 미술탐험대 14:30 부릉부릉 부릉미즈 15:00 모피와 친구들 15:15 세계사 시간여행 15:30 꼬마기사 마이클 15:40 으랏차차 아이쿠 16:00 캐니멀(재) 16:30 코코코 다코 16:45 똥동맹 유치원 1~3(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4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재)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다크 오늘 (두테이아 여전사) 20:50 세계테마기행 (알프스를 밟는다, 그뤼에르) 21:30 한국기행 (강릉로부터, 여름 1부 강이 카우고 바람이 살피고) 21:50 EBS 다크 프라임 (열사의 전사들, 생명의 물을 찾아서) 22:45 달라졌어요 23:35 시대공감 24:05 지식채널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3일(음 5월 9일 丙寅)	
子	48년생 체계와 질서에 따라야 만이 순조로움을 부르리라. 60년생 기존의 틀이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위험하다. 72년생 도약을 위한 고통은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 84년생 직접적이지 않다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87, 82	午	42년생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된 되면서 발전을 열 것이다. 54년생 급진적 가치로만 따질 일이 아니다. 66년생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78년생 못 이긴 척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관장은 모양세이다. 행운의 숫자 : 32, 34
丑	49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매달려야 할 때다. 61년생 접근성과 순발력의 문제가 될 것이다. 73년생 대단하지는 않으니 겸박을 필요는 없다. 85년생 일반적 보편성을 결여한 주권은 오류를 낳기 쉬운 국량이다. 행운의 숫자 : 28, 01	未	43년생 모순점을 배제하라. 55년생 마음만 앞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67년생 얼마나 오래 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를 보느냐이다. 79년생 반쯤은 보인다며 어느 한 순간에 기고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 행운의 숫자 : 23, 81
寅	50년생 절대로 대중 넘길 문제가 아니니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62년생 처음부터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74년생 회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현명하다. 86년생 긍정적인 마인드가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26, 54	申	44년생 향후의 판세 전개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56년생 입장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반목이 보인다. 68년생 유력한 이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다. 90년생 풍전등화의 위험에 놓여 있으니 대책 마련이 시급한 정황이다. 행운의 숫자 : 64, 85
卯	51년생 어려운 시기를 몇 번 넘기다가 이루어지겠다. 63년생 벗어나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걸음만 하게 된다. 75년생 필요에 따라서는 연기가 잘 될 수도 있어야겠다. 87년생 보고도 못 본채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2, 94	酉	45년생 기준과 통념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57년생 애초에 마음먹은 일장대로 처리하면 무난하리라. 69년생 시간은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의 하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81년생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니라. 행운의 숫자 : 12, 90
辰	40년생 우회하는 것이 낫다. 52년생 한 가지 일에만 열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64년생 꺾이지는 듯한 남따러지 앞에 서있는 형국이다. 76년생 계획에 부분적인 자질이 빛날 수도 있다. 88년생 파격적인 조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8, 60	戌	46년생 추진해 보았자 주목할 정도의 실익은 없을 것이니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하라. 58년생 반드시 고쳐야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70년생 세 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면 실수를 면한다. 82년생 불완전한 상태이다. 행운의 숫자 : 96, 93
巳	41년생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 주자. 53년생 신변에 많은 변화가 보인다. 65년생 확실하게 틀어고치는 것이 백년 나을 것이다. 77년생 역풍을 안고 있으니 부담스럽겠다. 89년생 주중에 따라서 선수를 따져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7, 97	亥	47년생 이루어진 결과로 인해 대단한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수가 높아진다. 59년생 체계적인 정돈이 필요하도다. 71년생 망실될 수도 있으니 관리를 잘하라. 83년생 저절로 웃음이 배어나오는 흥왕의 위상이다. 행운의 숫자 : 24, 5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